

6월, 예수성심성월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불타던 성심

6월은 예수성심 성월(聖心聖月)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달에 예수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축제들을 거행하고 예수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불타던 예수의 성심을 묵상합니다.

예수의 성심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며 자꾸만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성녀 비르짓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께서는 고통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죽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사랑은 극도에 이르러 그 심장은 찢어지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올 예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과연 이보다 더한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가고 예수께 배운만을 일삼는 우리 시대에 예수의 성심을 알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은 무엇보다 절실한 요구라 봅니다.

보라! 이 마음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오상을 보이시며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불타는 성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배운 땅을 당하는 나의 성심을... 너만이라도 배상을 드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녀 말가리

다 마리아 알라콕이 전하는 말입니다.

예수성심께 대한 신심은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성녀가 처음 시작한 신심도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지만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현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그녀에게 발현하여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면서도 늘 배운땅받음을 가슴아파하고 대신 보속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성심이라는 말은 풍요한 신학적 의미와 심오한 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신성과 위격적으로 일치되어 계시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참 심장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육체의 심장을 갖추어 보여주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이 영시(靈視)중에 본, 예수성심에서 활활 타오르던 불꽃은 바로 우리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의 상징이며 그 돌레에 씌워진 가시관은 바로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 인류가 범하고 있는 갖가지 죄악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성심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현대 세계 안에서, 불의와 분열로 상처받은 인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흘리는 성심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목마르다”(요한 19, 28)고 외치신 예수의 성심은 우리의 사랑을 복원해 하십시오. 당신 사랑의 불이 모든 이의 가슴 안에서 타오르기를 열망하는 절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성심으로 해결되지 못할 인간의 죄악은 없고, 예수 성심의 불길로 타서 없어지지 않을 이 세상의 죄악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성심께 대한 우리의 신심은 사랑과 보속으로 성심의 원(願)을 채워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배은, 특히 그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인 성체성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냉담과 무관심, 멸시로 끼어드리는 모욕을 기워잡는 것입니다.

성심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봅시다.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고 신선하듯이 그릇된 병폐의 혼탁한 물을 성심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여 인류의 고통과 희망의 심장부에서 상처받은 그분의 성심을 위로해 드립니다.

예수성심께 대한 보속은 우리들의 은혜갚음이며 사랑의 의무이며 또한 우리 영혼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6월, 예수성심을 공경하는 이 달에 우리는 알면서 범하는 불완전, 소죄라도 피하여 예수성심을 슬쁘게 헤드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고, 크나큰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우리들이 전에 성심께 끼쳐 드린 모욕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시는 능욕까지도 보속할 결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성자를 사랑하며, 이웃 형제들 가운데서도 성자를 알아보게 하소서”(예수성심 대축일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머무는 자 안에 하느님도 머무십니다.



6 월 중 행사

- 9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혼배 미사 12:30
- 11 구역미사 명곡 5,4 반
- 12 " " 1,2 반
- 13 교리반개강 8:30
- 14 예수성심대축일
- 18 구역미사 1 구역 7,8 반
- 19 " " 9,10 반
- 20 교리반교리

6 월전례 해설 및 독서자

구 분	주	야
2 주	해설 이 성재(프란치스코)	이갑철(분도)
	1 독 박무호(세바스티아노)	김상희(요안)
	2 독 황혜숙(발비나)	최경희(스텔라)
3 주	해설 양광남(요한)	안경립(에드워드)
	1 독 윤광우(요셉)	김기오(펠릭스)
	2 독 이지우(카타리나)	홍순녀(테오필라)
4 주	해설 현기권(원선시오)	전영태(엠마누엘)
	1 독 노경구(벨라도)	이병권(바오로)
	2 독 최월희(제시리아)	백종운(안젤라)
5 주	해설 김원술(루치아노)	전동일(돈보스코)
	1 독 김창균(바오로)	노양성(스테파노)
	2 독 염혜숙(루시아)	이선홍(라파엘라)

작은 일에 충성을

우리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느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생활속에서 맡겨진 여러가지 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내에서 내앞에 나타난 크고 작은 일들을 대할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만족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하여 정성을 다 바치고 있는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일상 반복되는 일에서부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하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내

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 과정에서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로 보거나 가치없는 일로만 생각하여 그 일에 회의를 느끼고 성의없이 처리했거나 게으름을 피운 일들이 없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작아 보이고 사소한 일일수록 더욱 지켜 보시고 확인하고 제심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마태 25/14-30) 말씀에서...네가 작은 일에 충성은 다하였으니 이제내가 큰일은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 하듯이 작은 일의 성취없이 큰 일은 결코 이루어 주시지 않음을 깨우쳐 주시는 비유로 생각됩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을 위해 성모님의 정성이 필요 했듯이 작은 일을 더욱 크게 보시는 주님앞에 일상의 작은 일들을 하느님께 열심히 바쳐 드려야 하겠습니까.

김 중 원 (요셉)

레지오 마리아 란 ?

1921년 아일랜드에서 평신도들에 의해 조직된 이 단체는 전세계 천 오백 개 이상의 교구에 퍼져 있는 국제적인 단체이며, 우리나라에는 1953년에 도입되었다.

이 단체는 기도를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신심 단체로서,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갖가지 사업을 교회의 지도에 따라 적극 협력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단원들을 성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마리아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군대처럼 조직되어 마리아가 지상에서 행했던 완전한 순명과 헌신적인 사랑, 깊은 내적생활 등을 본받고자 노력한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비가톨릭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신자들이 다시 열심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돌보고, 환자와 새 영세자들을 돌보는 등 본당 중심의 갖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공 지 사 항

◎ 첫 영성체 교리반 개강

- *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
- * 국민학교 3학년이상 어린이로서 첫 영성체를 안한 어린이와 영세를 안한 어린이 (단, 부모가 신자인 경우)
- * 개강일 — 6월 3일부터
- * 첫영성체식 — 7월 7일 주일어린이미사

◎ 새 예비자 교리반 개강

- 근 2개월간 장기간의 준비끝에 새 교리반이 6월 13일 목요일(오후 8시 30분) 개강됩니다. 증거의 해에 교형자매 여러분은 적어도 1명 이상 반드시 주님앞에 인도하여 영세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낮 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 저녁반; 매주 목, 금요일 오후 8시 30분

◎ 구·반장 회의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구·반장 회의가 있습니다.

소 식 란

◎ 원장 수녀님 피정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주 본원에서 본당 원장수녀님(은호노라다)의 피정이 있었습니다.

◎ 하상회 산상기도회

5월 27일 복사단야유회 겸 하상회 산상기도회가 도청 뒷산에서 있었다. 많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으나 이날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회장님 모두 참여하시어 격려하여 주셨으며 등반중 로사리오기도 열심히 드렸고 산상에서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산상설교(진복판단)에 대한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끝난후 무사히 하산하였다.

◎ 본당 야유회

6월 2일 삼위일체 주일에 용지국민학교 뒷산에서 야외미사와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은 신자들의 가족소개와 게임이 있었다. 본당행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으나 이런 행사를 통해 한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전출입 교우명단(5월중)

전 출	전 입
김경자(엘리사벳)	김영호(스테파노) 가족
이은우(바오로) 가족	이제환(말찌나)
조애자(루시아)	김상본(가브리엘)
강인호(자카리아)	구영옥(아네스)
이재경(방지거)	차순희(루피나)
고진미(마르첼라)	김한홍(알로이시오) 가족
	송명엽(요한) 가족
	문충남(모이세) 가족
	신병숙(마리아)
	이경원(마리아) 가족
	(도미니카)
	김인옥(로사)



생 각 해 봄 시 다

현자들의 대명사가 ‘솔로몬’이라 할만큼 솔로몬은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을때 어느 때보다 더 잘 드러납니다. 그는 이 물음에 장수나 부귀나 쾌락이나 원수갚는 일을 청하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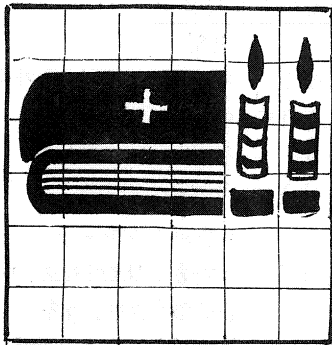
이것이야말로 현자의 특권이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 들어 줄 때 좋은 부모, 좋은 사제, 좋은 수녀, 좋은 친구, 좋은 학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변가의 말을 들으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들은 바를 실천하려면 희생과 자기포기가 필요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바를 실행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은 깨닫는 마음이며 이해하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이며 이 세상의 현상들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이며 영원의 소리를 침묵 중에 헤아려 그것이 신의 음성임을 알아 듣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닮은 사람

글 · 윤 수산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으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

—시—

어둠 속에서

이 한밤
검검한 바닥 누군가
지상의 거리거리마다
금지의 팻말을 박아놓고
죄악의 씨를 뿌려놓고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누구의 원칙에 따라
권모와 술수의 원칙에 따라
세상 모든 불평불만을
밤의 창살에 쏘서넣고
턱으로 판관을 부리고 있을 때

아, 누가 아랑곳이나 하라마는
그래도 누가 있어
뜬 눈이 있어 볼 수라도 있다면
누군가 침묵을 떠나
뿌려진 그 씨앗을 파헤쳐
더럽혀진 손으로
짓눌린 하늘을 찢고 있다는 것을
볼 수라도 있다면
누군가 누구의 원칙에 따라
자유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진실을 말해놓고
잠자리에서 편할 수 없어
바람으로 빠져나와
꿈무늬에 감시의 눈총을 달고
화살에 쫓기는 과녁으로
필사의 죽음으로
신새벽을 알리는 숨소리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라도 있다면
듣는 귀라도 있다면.

— 김 남주 시집 <진혼가>에서 —

요즘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어느 동네
든 문패 옆에 ○○ 교회 다닌다는 표
시가 나란히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신자가 늘지 않
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마저 나오지
않아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데
우리 나라는 갈수록 신자가 늘어간
다. 특히 천주교회는 작년 교황 방한
후 더욱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이 증가하는 것 같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에게 주시는 큰 사명인지도 모른다.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지 이백
년. 순교자들의 열을 이어받아 가난
한 이들과 더불어 복음적 삶을 증거
하며 사는 이들의 몸부림이 여기저기
서 보인다. 이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
현이며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그러나 요즘을 주위에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나자
신 반성하는 점은 ‘예수 믿는 사람’
들은 많으나 ‘예수처럼 사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많으나 십
자가를 지고(세상 고통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 이웃의 고통을 알
려 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온갖 부패
와 오염으로 병들어 가는데도 별 관
심이 없다. 오로지 나만 잘 살면 천
당간다는 믿음만을 갖고 살 뿐이다.
루터의 말대로 “죄를 짓되 더욱 믿어
라”는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마는 예수쟁이들이
우리주위에는 얼마나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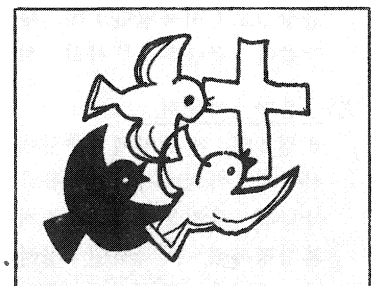
그들은 노동자의 임금은 쥐꼬리만
큼 주거나 그것도 모자라 빼먹고

도망가고, 돈만 있으면 땅 사서 놀리
다 올려파는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열
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그리고 교회
에 감사 감사하다고 그 돈을 갖다 바
치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돈 가져온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또 빌어주고는 그 돈으
로 교회 지어 온갖 장식으로 잘 꾸며
놓는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교회만 안
정되고 우리들만 편안하면 된다는 식
으로 믿음을 갖고 사는 무리들이 늘
어간다.

내가 아는 농사꾼 아저씨 한 분이
계신다. 동생이 정의를 외치다 감옥에
간 후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는 분이
다. 하루는 그가 방문하셔서 대뜸 성
서의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으셨다. 그
리고는 당신의 의견을 말하셨다. 빵의
기적은 흔히 예수만이 한 기적 사건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빵덩어
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재화로서 이를 나누면 나눌수록 먹고
도 남는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예수
처럼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재화를 골
고루 나누어야 하는데 혼자 먹겠다고
쌓아두니까 항상 부족하게 되어 가난
과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하
고는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
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
다.

국민학교만 나오셨다는 이분의 말
씀을 듣다 보면 내가 마치 예수 앞에
서 회개하고 따라다니던 군중처럼 느
껴진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본다.

윤 수녀 (수산나, 41세) 씨는
AFI 회원으로 현재 노동사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반송 천주교 신용협동조합을 아십니까?」

신용협동조합 창시자는 독일사람(술체·텔리치 1808-1883)와 (라이파이젠 1818-1888)입니다. (술체·텔리치)는 도시에서 수공업자와 소상인을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시작했고 (라이파이젠)은 농촌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은 (라이파이젠)신용협동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 나라에서 시작한 사람은 장대익 신부와 미국인(메리.가별)수녀였습니다. 1960년(가별)수녀는 부산에서 장대익 신부는 서울에서 카톨릭 교인을 대상으로 운동이 시작되어 오늘날 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송동 천주교회는 1983년에 초대 이사장이었던 배상길씨외 5명이 이 운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출자금 2천만원을 넘었으며 보통 예탁금 등 모두가 4천여만원이 넘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탁은 적은 규모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반송 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신자들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며 돈이 필요할때는 사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하고 생각 끝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은행의 창구가 얼마나 높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에 대부를 위하여 모든 서류를 갖추어 내어 놓으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짜증스럽고 돈을 받기까지의 여러 가지 말못할 사정은 경험자만이 아는 문제점 들입니다.

우리 신탁은 지금까지 신속 정확하게 대부임무에 임하고 있고 비록 소규모지만 여러 조합원에게 상당한 편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신자 중심으로 구성된 신탁은 신의와 사랑에 입각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 이용

해 본 사람이면 그 편리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송천주교 신탁은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합리적인 대부를 신용담보로 이용할 수 있고 작은 펀돈을 주일마다 저축하면 목돈이 되고 이자 배당을 은행보다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천주교 신탁은 조합원들이 날로 늘어나고 저축금액이 하루하루 증가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큰 신용협동조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신자분들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 다 음 * *

첫째,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신자로서 교적이 반송 성당에 있고 반송 성당 구역내에 거주하며 주일미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영세하지 않은 예비자는 교리반에 열심히 나오고 수녀님의 추천이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원으로 가입하자면 도장과 2,000원이 있어야 합니다. 1,000원은 가입비이고 1,000원은 1구좌 출자금입니다.

셋째, 조합원이 되면 꾸준히 천원, 이천원씩 출자금을 올려나가야 하고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10만원까지는 담보, 보증 없이도 신용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조합원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으니 무조건 한번 본당 사무실 신탁 직원 “요안나”에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줄 뿐 아니라 곧 조합에 가입하게 될 것이고 조합에 가입하길 잘 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탁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며 반송 성당 신자 여러분의 것으로서 신적 상호간에 상부상조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느님 가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제일 먼저 창설한 분이 우리 교회의 신부님과 수녀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985 . 6 . .

반송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장 노경구(벨라도)

TEL. 성당 82-0985

신협 금리 조정 공 고

신용협동조합 금리가 '85.6.1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1985.6.1부터

종		별	종		전	개		정	비		고	
수 신	보		통		예	탁	금	2.0	%	2.0	%	
	정기예탁금	3	개	월	이	상	7.0	%	7.0	%		
		6	개	월	이	상	신	설	9.0	%		
		1	년	이	상	10.5	%	11	%			
	정기적금	1	년	10.5	%	10.5	%					
		2	년	10.5	%	12	%					
		3	년	10.5	%	13.0	%					
	정기월부금	1	년	789	원	789	원	계 약금액 10,000 원 기 준				
		2	년	376	원	371	원					
		3	년	248	원	232	원					
여 신	대		출		금	13.0	%	14.5	%			
	연		체		대	출	금	22.0	%		22	%
중 도 해 지 이 자	1) 정기예탁금											
	1 개월이상 경과분; 연 3 %											
	3 " " ; 연 4.5 %											
	6 " " ; 연 6.0 %											
	1년이상 " ; 연 9.0 %											
2) 정기적금												
1 개월이상 경과분: 연 3 %												
1 년이상 경과분: 연 10.5 %												

성서묵상

진정 신뢰하고 있는가?

— 마태오 6 장의 말씀에서 —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당신 자녀가 되게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를 의지했었고 또 우리 자녀가 우리를 의지하고 있듯이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 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6, 9.25).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재물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량을 베풀 때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된다. 아량을 베푸는 동기가 우리 자신의 명성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는 돈 걱정에 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지만 근심걱정에 젖어들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인 것이다.